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치과대학으로 환원시키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전공 의학박사 임 창 윤

2002년에 문교부로부터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학제를 2+4(예과 2년+본과 4년)에서 4+4(일반대학 4년+전문과정 4년)로 학제를 변경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다. 그와 함께 교수충원과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겠다는 제안도 들어왔다.

이것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시발이 되었던 것이다. 학부제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함으로써 2년제의 예과과정은 없어지고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과대학’ ‘치과대학’이란 명칭은 없어지고 현재와 같은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몇몇 치과대학(3개 대학)은 예전과 다름없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6년제 학제를 그대로 시행하는 대학도 있고, 2+4와 4+4의 학제를 병용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안겨주고 있다.

1. 교과과정에서의 양자(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 간에 차이가 없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은 기존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서의 교육내용과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교육 system만 교란시키고 말았다.

의사나 치과 의사가 되는 데 2+4제의 졸업생이 4+4제의 의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의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들이 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배우는 해부학이 6년제 때의 학부 학생들이 배웠던 해부학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6년제 때의 학생들이 배웠던 인체의 구조가 전문대학원에서 배우는 인체의 구조와 다를 리 없다. 질병의 명칭은 어떠한가? 전문대학원에서 배우는 또 전문대학원 출신 의사들이 사용하는 질병의 명칭이 다른가? 그 병명이 그 병명이고 질병의 본태가 다른 것도 없다. 6년제 학부 때 배웠던 결핵이란 병이 8년제 전문대학원에서 배우는 결핵질환과 병의 본태가 다를 것이 없다. 6년제 학부에서 배웠던

충치가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배우는 충치란 질병과 같다는 이야기다. 더 배우는 것도 없고 덜 배우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는 데 2+4제의 졸업생이 4+4제의 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2+4제의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4+4제의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를 더 잘, 더 고급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두 제도에서 배출된 의사나 치과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하등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이행은 오히려 전문교육을 가르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교과과정을 더욱 각박하게 하여 교육기간을 더 연장시켜야 할 형편이 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사회에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2. 한국 기초학문계열에 교란을 가져온다

요즘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을 나와도 일할 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 실업자가 수십만을 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실제로 4년제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려니까 일반 자연계나 인문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분야를 버리고,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려고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지원자들의 경향을 보면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또는 KAIST 대학을 나온 우수인력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의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치과신문 2010. 2. 15일).

그러므로써 공학이나 자연과학 등 이공계학과를 전공하는 인재를 많이 키워야 할 현실점에서 그 쪽 부문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가 전공한 학문은 포기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수, 3수까지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들 공과대학이나 기초과학 대학이 의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준비학원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은가 심히 우려된다. 실제로 현재 의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중에 공과대학 출신이 40%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현실적으로 공과대학이나 이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를 전공분야의 대학원을 기피하고 오히려 의치학전문대학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우려되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교육의 연계성이 없다

사실상 의치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일반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의학이나 치과의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인재를 더 양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의학에 화학이나 물리학 또는 생물학을 접목시켜 다시 의치학을 공부하기에는 학문적인 괴리감이 너무 많아서 별로 4년제 대학에서 배웠던 학과목과 의치학과에서 배우는 학과와의 연계성이 별로 없어 별 도움이 안 된다.

대학원이라면 4년제 일반대학을 나온 사람이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부에서 배운 학문을 더 세분하여 그 전공과목 중에 어느 한 부문을 더 공부하고 연구하여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의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이나 치과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계 대학을 나온 후에 다시 생소한 의학이나 치과의학을 공부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학이나 또는 치과의학의 대학원과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학전문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이라야 옳을 것이다.

애초에 의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은 인간을 다루는 의사, 치과의사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과 덕목과 인격을 갖춘 인재를 의사나 치과의사로 영입한다는 데 의의를 두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과거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2년을 더 하기 위하여 예과 2년 과정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은 현재도 과거 한국과 같이 예과 2년 과정을 두어 예과 2년 본과 4년과 함께 6년제를 시행하고, 프랑스나 구라과 각국은 중고등학교 과정이 7년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이 5년제나 6년제를 하고 있지 8년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은 치과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나온 후 치과과정 1년을 더 하면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미국은 8년제와 6년제가 혼합되어 있다.

4. 사회의 기여도

또 8년이란 교육기간으로 말미암아 사회로의 진출이 늦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로의 진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졸업과 동시에 개원가로 나와야 되는 조급함을 더 느끼게 되면서 인력의 소모와 계속적인 학문의 기여도를 줄이는 오히려 부정적면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군의관 요원의 확보인데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치전원에 입학함으로써 군의관 요원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군의관과 보건인력수급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여야 할 문제이다.

지금 치전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들어가 의학이나 치의학의 어느 분과를 더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경향은 없고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나와 이제까지 지체되었던 사회진출 기간을 만회하려고 의료현장에 뛰어드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5. 2010년은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재평가의 해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입시지옥에서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으로의 진입을 배제시킴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입시의 지원분야를 더욱 좁혀놓았다.

현재의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모두에게도 이로운 제도가 아니다.

과거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에서는 현재의 전문대학원에서보다도 더 많은 전공과목에 대한 시간을 갖고 실습과 학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다. 오히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예과에서 배웠던 기초의학 일부분의 시간이 전문대학원으로 이관됨으로써 시간이 더 줄어든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이 의학의 전문과목 이수시간을 축소시켜 더 부실한 교육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구나 의치전원의 등록금이 2+4제 때의 200~400만원에서 2~3배(800~1,200만원)로 되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들어 일부 의학계열에서는 2010년부터 다시 2+4제로 복귀를 모색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간부들은 국가에서 그 동안 4+4학제로의 전환과정 중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2+4학제로의 환원이 곤란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많이 쏟아 부었는데 다시 원상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하지만, 4+4학제로 계속 가면 국가의 예산은 더 들어가고 그 폐해는 더 많아질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다시 6년제 예과(2년) 본과(4년)과정인 있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당시(2003년) 2005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의치학전문대학원의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아서 2010년에 다시 6년제 치과대학으로 전환 할 것인가? 또는 지금의 4+4학제의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계속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지금 상황이 그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제안하는 바이다 (2010년 2월 25일).